

Gary Yates 박사, 예레미야, 강의 7, 예레미야 1, 예레미야의 부르심

© 2024 게리 예이츠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예레미야서에 대한 강의를 하는 Dr. Gary Yates입니다. 7회기 예레미야서 1장 예레미야의 부르심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예레미야서 1장과 선지자로서 예레미야의 부르심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예레미야서의 첫 장인 예레미야서가 예레미야서 전체의 메시지에 대한 소개이기도 한 방식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 세션에서 예레미야의 놀이터에 대한 큰 그림과 일종의 놀이터를 파악하는 데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신학에 비추어 예레미야서를 이해했거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국제 정세와 바벨론과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예레미야의 관점은 어떠하였습니까? 우리는 또한 예레미야가 유다의 마지막 다섯 왕과 함께 국내 장면에서 상호 작용한 것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의 불신실함으로 인해 어떻게 붕괴와 몰락을 가져오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두 세션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책으로 좀 더 살펴보고 책의 구성, 기록 방식, 구성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예레미야서의 배열과 이 책이 세 부분으로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장부터 25장까지는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26-45장에는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46-51장에는 그 나라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는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예레미야의 부르심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1장 1절에 이 말씀이 있느니라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우리가 그 간략한 전기적 진술을 보고 예레미야의 생애를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특정한 개인을 부르신다는 사실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여러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을 개인의 약점과 열정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개인 예레미야를 아마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가장 어려운 사역 중 하나로 부르실 것입니다. 개인으로서 예레미야에 관해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간단한 사항입니다. 첫째, 예레미야는 아나돗 사람입니다.

1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3마일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8절은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48개의 성읍 중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또한 1절에서는 예레미야가 힐기야의 아들이고 힐기야는 제사장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예레미야가 제사장 집안 출신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청년이었을 때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계획을 생각하고 계획하면서 아버지처럼 제사장의 자격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4장 3절은 제사장이 30세에 봉사를 시작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한 다른 계획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개인으로서의 예레미야에 대한 부르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 번째는 6절에서 그가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아, 주 하나님, 나는 아직 어려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정확히 몇 살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요시아 13년인 626년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대략 580년까지 연장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사역은 거의 50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부름을 받을 당시 매우 어렸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나는 아직 어려서 말을 할 줄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나는 청년이라 말할 때 나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다양한 의미와 사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유아인 어린이를 지칭할 수도 있고 나이가 많은 소년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실 때 이삭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삭이 적어도 그의 아버지가 산으로 올라갈 때 희생 제물을 운반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르라는 단어는 결혼할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많은 청년, 하인, 전쟁에 나갈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많은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예레미야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쨌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을 하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믿습니다. 주님, 저는 어려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삶과 관련된 부르심에 관한 또 다른 사실은 예레미야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중 일부는 주님께서 그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자녀를 갖지 말라고 요구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예레미야의 부르심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곳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땅에서 태어난 아들딸과 이 땅에서 그들을 낳은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들이 치명적인 질병으로 죽으리라. 그래서 주님,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나중에 예레미야의 사역에서 전달될 것입니다. 주님은 예레미야가 결혼하거나 자녀를 갖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의

가족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족을 잃게 될 것이라는 표징 행위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종종 가족 상황이나 선지자의 자녀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는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 스알야습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마헬살랄하스바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장차 올 심판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에게 불충실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어진 관계를 반영하는 아이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이름에는 뭔가가 담겨 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함락될 때 그의 아내가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로서 슬퍼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사역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에 종종 그들의 가족이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예레미야여, 이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과 그가 겪게 될 모든 일들 속에서도 그는 가족을 아는 격려나 축복을 결코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아내와 세 자녀에 대해 생각합니다.

제가 인생에서 받은 가장 큰 축복, 제가 구원받은 것 외에 하나님께서 제가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가장 큰 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때로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아내가 격려해 준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밟을 때 제가 논문을 마칠 수 있게 도와준 유일한 것은 아내와 그녀의 끊임없는 격려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모든 것을 박탈당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부여하신 부르심의 일부입니다.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 우리가 아는 또

다른 사실은 그가 부름을 받을 때 서기관 바룩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 후반부에서는 바룩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는 예레미야서를 기록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그는 32장, 36장, 43장, 45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조금 더 알게 되겠지만 그것은 예레미야 사역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에 대해 우리가 아는 마지막 사실은 예레미야가 이집트에서 난민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은 거기서 끝나는 것 같다. 선지자 예레미야에 관한 한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그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책 끝부분에서 예레미야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대립적인 메시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그것이 매우 가능성이 높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엄청난 고난과 박해와 반대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의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개인을 부르시며, 주님께서 그 개인을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개인들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와 독특한 은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특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개인들을 부르시는데, 예레미야도 그 중 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책을 공부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한 용기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탄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으로서 그에게 어떤 비용이 들든 상관 없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부르심에 대한 실제 기록과 그 구절을 살펴보면서 본문 전체를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부르심 자체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 사명으로 부르신 것을 읽을 때, 우리는 예레미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강권과 긴박성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4절과 5절에서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첫 번째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노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내가 너를 민족들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구약과 심지어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시는 것처럼 선지자들의 부르심에 대해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는 것 중 하나는 선지자를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그가 맡게 될 역할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대변자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의 삶에 손을 얹고 계시다는 이러한 느낌은 실제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의 삶에서도 나타납니다.

주님은 그를 태에서부터 사도로 부르시고 그에게 주신 역할을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바울은 길을 가다가 그를 땅에 떨어뜨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나의 대변인과 선교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레미야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책을 펴면서 “나는 늘 선지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적성 시험이나 영적인 은사 목록을 보고 선지자가 되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맞는 일인지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의 삶에 개입하시며, 너는 나의 대변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예레미야가 자신의 삶을 위해 갖고 있던 계획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에 대해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선지자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중단시킬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제사장 가문의 에스겔도 30세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이 생각했을 당시에는 나는 제사장이 될 것이고 그는 바벨론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성전에 있지 않으며, 대신 하나님은 그를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을 위한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아모스는 유다의 부유한 지주였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선지자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직업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에게 유다의 집을 떠나 북쪽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의 계획을 재조정하실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모세와 기드온.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그 일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반 위에 올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밤중에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가 될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 말에 완전히 놀랐습니다.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주권의 행위이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의 부르심을 살펴보면, 그것은 개인이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선택권이 없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것이 나에게 별로 편리하지 않습니다. 아뇨, 고마워요, 하느님. 내 인생에는 다른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선지자는 응답합니다. 요나는 선지자가 저항하고 도망치려 해도 도망치려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시고 궁극적으로 그의 주권적인 목적을 성취하실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엘리야는 예언 사역에서 물러나려고 합니다.

그는 '주님, 충분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죽을 준비가되었습니다. 그는 생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세벨에게서 도망칩니다.

그러나 그가 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시내산과 호렙산으로 다시 데려가셔서 그의 예언적 사역을 완수하도록 다시 위임하셨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그 일과 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강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긴급하게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는 신성하고 설득력 있는 충동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면 나는 더 이상 그를 언급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예레미야는 자신이 전파하는 소식 때문에 온갖 반대를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만일 내가 멈추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속에 불붙는 것이 있어 골수에 사무치게 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참는 데 지쳤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신성한 느낌이 있습니다. 나에게서는 복음을 전파해야 할 책임과 충동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이 소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동일한 신적 강제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비디오 세션에서 우리는 선지자를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이야기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성벽 위에 서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심판과 다가오는 적에 대해 경고하도록 임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에스겔에게 설명하시면서, 네가 백성들에게 닥쳐오는 위험을 보고 경고하면 네 책임은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지 않는다면, 그들의 피는 그들의 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임명하고 파수꾼으로 보냈다면 네가 다가올 심판을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결국 그들의 피가 네 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1장에서 이 부르심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신성한 긴급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신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뼈에 불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입에 있는 불이라.

그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는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1장을 공부하면서 제가 흥미롭게 느낀 것 중 하나는 이 구절을 구약성서에서 볼 수 있는 다른 부르심 구절 옆에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모세와 기드온, 에스겔과 이사야에게 그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 구절들을 살펴보고 동일한 내용을 다룬 연구를 읽으면서 발견한 것은 거의 모든 구약성서 구절에 나타나는 네 가지 기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소들이 무엇인지 요약하고 예레미야 1장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항상 하나님의 비전이나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면의 감각이 아니라 강요해야 합니다. 그들은 비전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봅니다. 에스겔은 아마도 하늘을 달리는 수레에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환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을 봅니다. 항상 하나님의 비전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둘째, 특정 작업에 대한 커미션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보내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해 전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누가 가서 우리를 위하여 말하겠느냐? 이사야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는 유다 자손에게 집과 성읍을 멸하기까지 공의를 선포하라 내가 그 나라를 나무 그루터기 같이 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모든 예언적 부르심의 세 번째 공통적인 특징은 일반적으로 무가치함에 대한 반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이 방금 제게 주신 일을 맡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반응과 반응이 “아, 주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나는 말하는 방법을 모른다.

모세의 경우와 여러 면에서 예레미야는 모세와 매우 흡사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나는 허를 잘 구사하지 못합니다.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모세의 경우에는 반대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아론을 보내기로 동의하셨습니다.

하지만 무가치하다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주님, 맞는 사람이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씨족과 지파 출신입니다.

왜 나를 구원자로 부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은 한밤중에 일어났으며 기드온은 한밤중에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워합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를 볼 때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는 음성을 듣느니라

이사야는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 또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라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그렇게 확신하지 않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무가치한 표정을 짓지 않지만,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며칠 동안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는 그 존재감에 압도당할 뿐입니다. 제 생각에는 때때로 부르심의 이 특정한 측면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고 설명할 것입니다. 나는 무가치하다는 반대가 좋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으로 부르실 때 우리 모두가 반응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전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특정 작업에 대한 커미션을 받습니다. 저는 주님, 당신이 초안 선택을 훌륭하게 활용하셨다는 적절한 반응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단지 당신이 맡은 일을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무가치하다는 반대는 바로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Peyton Manning이 대학에서 쿼터백으로 드래프트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 콜츠는 책임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리더가 될 책임자를 선발할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터뷰를 위해 그를 불렀고 우리는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당신을 쿼터백으로 드래프트해야 할까요? 페이튼 매닝은 인터뷰 말미에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저를 첫 번째 픽으로 드래프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신이 나를 초안하지 않으면 나는 내 남은 경력을 당신이 그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데 쓸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바로 축구팀이 쿼터백에 대해 듣고 싶어하는 종류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반응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인식합니다. 이는 신약성서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강력한 기적을 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합니다.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한 자리에서는 자신의 사역을 반성하며,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삼고, 전도하고, 복음의 사역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하기에 충분합니까? 대답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에게서, 그의 말씀의 능력에서, 그의 영의 능력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의 삶에 역사하는 새 언약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감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가치하다는 반대가 믿음의 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경우, 그가 그것을 다시 언급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주장하니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과 같은 엄청난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무가치함입니다. 그에 따라 주님께서는 무가치하다는 반대자들을 응대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에 대한 약속이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보호와 능력이신 예레미야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주 하나님, 보십시오, 나는 어려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그리고 주님께서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셨다면, 예레미야는 주님의 말씀이 그의 사역의 기초가 될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나라들과 왕국 위에 세웠다. 선지자 같지 않은데요. 왕 같군요.

내가 너를 뽑고 허물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실제로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도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의 말의 힘입니다. 바로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권한 부여입니다. 18절에서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그의 능력과 능력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보라, 그가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너로 이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중 그 부분을 들었다면, 그것은 분명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당신이 큰 역경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서 나올 것입니다.

공무원에게서 나올 예정입니다. 그것은 왕들에게서 나올 것입니다. 그 재앙이 사방에서 오겠지만 나는 너를 견고한 성처럼 만들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는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예레미야가 그의 사역에서 겪게 될 어려움을 상기시켜 주는 흥미로운 시적 장치가 있습니다. 1장 5절에서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태 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노라.

괜찮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5절에 나오는 자궁에 대한 언급을 기억하고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8절에는 이 부분들을 통합하는 일종의 포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장 1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내가 그 어머니의 태에서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1장 5절에서 자궁에 대한 언급을 들을 때 20장으로 가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결코 나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예레미야가 겪게 될 사역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사역이 얼마나 어려운가입니다. 이제 이 네 가지 요소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음성, 위임, 반대, 그리고 보호와 능력의 약속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 특정 작업에 대한 위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괜찮은. 그리고 우리는 9절에서 이 시작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오늘날 너를 여러 나라와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노라 특별한 책임, 예레미야의 특별한 부르심은 단순히 유다의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은 실제로 그가 열방을 위한 선지자가 되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는 예레미야가 보통 다른 나라로 전파 여행을 할 것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가 다른 나라들을 위한 소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그 범위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 백성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의 일입니다. 큰 나라들에게 말하는 것은 훨씬 더 큰 일입니다. 또한 주님은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날 너를 열국과 나라 위에 세웠으니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말한 핵심 곧 뽑고 부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뽑다, 무너뜨리다, 멸망시키다, 전복시키다, 이 네 동사가 예레미야는 심판의 선지자이다. 그리고 그 동사들은 책의 여러 곳에서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건축하고 심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후에 구원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체적인 수수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구체적인 임무입니다. 당신은 나의 선지자입니다. 나는 내 말을 당신의 입에 담을 것입니다.

당신은 열방을 향한 선지자이자 심판과 구원의 선지자입니다. 이제 1장으로 더 들어가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명의 일부가 환상적 방식으로 예레미야에게 표현될 것입니다. 이것이 11절입니다.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예레미야는 내가 아몬드 가지를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느니라. 나는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리라.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읽으면서, 당신은 '글쎄, 나는 그 연관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몬드 가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음, 여기 있는 것은 히브리어로 된 말장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몬드 가지라는 단어인 shakad는 감시하다라는 동사인 shokad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샤카드가 보이고 아몬드 가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쇼카드(shokad)로서 내 말을 지키며 그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살구나무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상징합니다.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전화드렸습니다. 아몬드 가지는 또한 봄에 꽃이 피는 최초의 나무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전파해 왔지만 살구나무의 꽃이 핀 것은 마지막 때를 상징했습니다. 추수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사명의 일부였습니다.

13절과 14절에는 또 다른 환상적 요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나에게 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내가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끓는 가마를 본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북쪽에서 재앙이 이 땅 거민에게 임하리라 하셨느니라

보라 내가 북방 나라들의 모든 지파들을 부르노라 그들이 와서 각기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그 자리를 정하고 그 모든 성벽과 온 땅을 향하게 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유다의 도시들. 그리고 나는 그들에 대한 내 심판을 선언하고, 그들이 나를 버림으로써 모든 악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본 또 다른 환상적 요소는 그가 뜨겁게 타는 가마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마의 끓는 액체가 북쪽에서 흘러나와 유다 땅에 쏟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군대를 나타냅니다. 결국은 바빌론입니다.

현재로서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북쪽에서 온 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4장 6절, 6장 22절, 10장, 22절, 13장 20절, 15장 12절에서 그런 식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구체적인 위임의 일부는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앞으로 와서 유다 백성을 지배하고 정복할 특정한 형태의 군대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심판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예레미야의 부르심과 사명은 여러 면에서 나에게 6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부르심과 사명을 많이 생각나게 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해 말해줄 것인가?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좋아요, 이사야, 당신이 설교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막게 하며 그들의 눈을 멀게 하여 두렵건대 그들이 귀로 보고 그들로 들으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이사야, 당신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설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심판에서 그들을 확증하기 위해 설교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행동할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전파한 심판과 말씀은 그들을 더욱 책임감 있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따라가며 말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오 주님?”

그리고 때때로 이 구절의 끝에서 우리는 이사야의 부르심을 연구할 때 그만둡니다. 이사야는 “주님, 제가 언제까지 이런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성읍들은 황무하여 거민이 없고 집에는 사람이 없으며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멀리 옮기시리라.

그리고 결국 이사야에게 그루터기처럼 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작은 그루터기에서도 제거된 잔여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예레미야보다 한 세기 전에 여러 면에서 같은 종류의 소식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시대에 여호와께서는 북왕국에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는 남왕국을 거의 멸망시킬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히스기야의 믿음이 그들을 구원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실상 그 일을 마치라는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주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하늘의 불에서 솟을 가져온 천사를 보내어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예레미야가 “주님,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라고 말했다는 의미에서 예레미야를 예표합니다. 저는 아직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의 입에 손을 대시고, 그의 말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하십니다.

나는 선지자의 부르심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에서 나오는 실제적인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종종 제가 목회자로서 사람들에게 상담을 할 때, 신학생들과 사역 계획을 논의할 때, 젊은이들에게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메시지를 받은 후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때,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시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곤 합니다. 내가 사역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겼나요? 오늘날 우리 삶에서는 그러한 경험이 어떤가요? 나는 우리가 예레미야가 겪었던 경험에 비추어 그 점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모든 신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신성한 부르심을 경험한다고 믿는 방식과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구원에 역사하는 방식을 어떻게 이해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칼빈주의자이든 알미니안주의자이든 우리는 구원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한다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주님을 안다고 말하다가 나중에 정정하여 '나는 주님의 알려지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니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되는 방법입니다.

나는 복음을 이해할 만큼 똑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내가 나의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분께로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성한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감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세속적인 직업과 전임 기독교 사역의 신성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이류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물을 그런 식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기독교 사역 이외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 그보다 훨씬 더 선교사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사역이나 기독교 직업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곳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선교사이건, 복음전도자이건, 목사이건, 의사이건, 교사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하도록 부르셨든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성한 부르심과 직업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분의 사자와 대변인으로 부르실 때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삶에 부여하시는 부르심이 여전히 있다고 믿습니다.

목회자든, 선교사든, 신학교 교수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하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 그에 어울리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역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종종 전달되는 것은 예레미야, 이사야, 기드온, 에스겔 또는 모세의 경험이 우리의 부르심과 정확히 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구절이 목회 사역과 같은 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규범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와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도구가 되도록 선지자와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종 환상적 요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적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 중에 주님께서 선교 여행 중에 그가 가고 싶은 곳을 실제로 인도하시는 환상을 받았습니다. 나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신은 그럴 수도 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는 어떤 방식으로든 일하실 권리를 갖고 계시지만, 그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역으로 부르시는 규범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선지자들로부터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 삶에 대한 그 신성한 부르심에 대한 압도적인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이며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다른 일을 하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당신을 부르셨다면, 거기에는 시급함이 있고, 그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며,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할 수 있고 그것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할 긴급함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서 내 뼈에 불이 붙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적어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독교 사역으로 부르실 때 우리 삶에 긴박함이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사역으로 복귀되어야 할 것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신학교 교수 중 한 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중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직업에 관심이 있지만, 여러분이 잊고 있는 것은 부름 때문에 신학교에 왔다는 것입니다. 사역은 직업이 아니지만 사역은 소명이다. 그리고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곳으로 부르셨고 당신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곳에 두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평균 목회 기간이 2년 또는 3년이라는 통계를 보면, 여러 면에서 우리 중 너무 많은 사람이 소명보다는 직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예언 사역을 소명보다는 직업으로 보았다면 그가 견딜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에게는 재정적으로 수익성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당신을 부르셨고 인생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 이것이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그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다는 기쁨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나는 때때로 학생들에게 사역의 특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일을 하도록 부르셨을 때 기쁨과 축복이 있을 뿐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삶의 기쁨과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것이 내 삶의 소명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이점과 모든 기회를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방법이나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방법의 독특함을 인식하고 때로는 우리가 접해왔던 미신적인 사상을 어떤

식으로든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 나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환상을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든 아니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것에 도움이 된 몇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몇 년 전 그 중 하나가 Gary Friesen의 책인 의사 결정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루스 월트키(Bruce Waltke)는 좀 더 직접적인 제목을 가진 이교도적 개념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라는 작은 책을 썼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것을 일종의 마법 같은 과정으로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Friesen 박사는 하나님의 뜻이 원 중앙의 점과 같다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남은 인생을 원의 중심에 있는 점을 찾는 데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즉,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창조하신 이 세상의 한 사람과 결혼해야 하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한 곳에서 한 일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계획의 어느 부분이라도 망친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계시하시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역을 맡았습니다.

저는 캔자스와 버지니아에서 목사로 일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버지니아나 캔자스로 가야 한다는 불타는 지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신학교에 가도록 저를 부르셨을 때, 버지니아는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이라고 말하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종류의 세부 사항을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의 중심에 있는 점을 찾으려고 평생을 보낸다면 여러 면에서 그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 상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자 속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결혼 생활에 관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도덕적 계명과 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내에게 충실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상자 안에 산다는 것은 그것에 충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자 밖에서 사는 것은 그 결혼에 충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상자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상자 안에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나는 상자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해 정해졌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상자 안에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 상자 안에는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온갖 종류의 기회, 결정,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구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인생에서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와 나눌 수 있는 다른 경험을 가진 그리스도인들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계획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해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나는 원의 중앙에 있는 점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상자 안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현명하게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항상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나는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의 섭리로 내 인생에서도 내가 내린 잘못된 결정을 사용하셨거나 아마도 완벽한 직업 기회가 아니었던 결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셨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일반적으로 당신이 주님을 섬길 때 부르심이 당신의 삶에 임하는 방식은 당신이 그분께 신실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부르신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소망을 당신에게 심어 주실 것이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골수에 불같았다고 말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것은 당신을 위한 열정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말해야만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문적인 기독교 사역으로 인도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성격, 은사, 능력, 직업 선택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절대적인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결혼한 여자와 결혼할 것을 창세 전부터 알고 계셨다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한 여인을 계획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파트너를 찾을 때 하나님께 신실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의 목표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삶에 대한 부르심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도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에 관한 마법 같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드온과 기드온이 양털을 내놓은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양털이 젖고 땅이 마르거나 땅이 마르고 양털이 젖으면 그들은 하나님께 그런 일을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직접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거나, 특별한 상황에서 사물을 확증해 주시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께 신실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나는 예레미야서 1장에 관해 몇 가지 다른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단지 부름 구절일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1장은 어떤 의미에서 예레미야서 전체에 대한 프로그램적인 소개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책 형태로 된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 성경의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52장으로 이루어진 큰 두루마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크기가 커서 다루기 힘듭니다.

1장을 보고 '이걸 빨리 펼쳐서 37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선지자들, 특히 더 큰 선지자들이 의도적으로 행하는 일 중 하나가 다음과 같다고 믿습니다. 책의 맨 처음부터 그들은 프로그래밍 방식의 소개라고 부를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포함될 주요 주제들은 우리에게 드러나고 첫 장에 담겨 있으며, 예레미야서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면서 펼쳐질 것입니다.

특히 예레미야서에는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전개될 1장의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가 열방을 향한 선지자(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6~41장)라는 사실을 책 전체를 통해 상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가 건설과 파괴의 선지자가 될 것임을 상기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예레미야 자신이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의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1장은 북쪽에서 적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북쪽에서 오는 적이 바벨론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네가 백성과 고관들과 왕으로부터 반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반대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저항하고, 듣지 않고, 실제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온갖 종류의 박해를 가하는 이야기에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 것과 같이 예레미야와 모세 사이에는 둘 다 “주님,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 전반에 걸쳐 보게 될 것이며, 이 책을 연구하면서 발전시키게 될 것 중 하나는 예레미야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경험은 여러 면에서 모세의 경험과 유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 일하면서 예레미야의 사역이 모세의 사역을 넘어서는 궁극적인 방법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 전체가 전개할 모든 주제는 기본적으로 이 첫 장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선 선지자의 부르심이 있고, 책 전체의 메시지를 프로그램적으로 소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에 대한 강의를 하는 Dr. Gary Yates입니다. 7회기 예레미야서 1장 예레미야의 부르심입니다.